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도시계획 수립한다

- 부산, 천안, 담양 3개 시·군을 R&D 실증 지자체로 선정
- 연구 및 프롭테크 산업 등 민간부문 활용방안도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산광역시, 천안시, 담양군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이하 ‘AI 도시계획 R&D’) 기술 시범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공모개요) 실증공고(22.12.28.~23.1.26.) → 심사(3월) → 협상(4월) → 선정(5월)

○ AI 도시계획 R&D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빅데이터) 이동통신, 신용카드 매출액, 교통량, 읍면동 단위 인구이동, 위성영상 등

-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15분 도시(부산), 콤팩트 시티(천안), 인구감소 대응 강소도시(담양) 등 지자체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AI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실증을 거쳐 기술의 정확성을 보완해나가고, 해당 기술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및 프롭테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기술 실증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706)
		담당자	사무관	성상명 (044-201-3718)

□ **R&D 연구개요**

- (연구목적)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객관적 인공지능 도시계획 기술개발
- (연구내용) 도시진단, 도시계획 수립, 도시변화 모니터링의 빅데이터·AI 활용
- (연구기간) `22. 4. ~ `26. 12. / (총사업비) 192억 원

* (`23년) 부산, 천안, 담양 3개 실증 지자체 선정, (`24년 하반기) 3개 지자체 추가 선정 예정

□ **실증 지자체 주요 지원사항**

① **부산광역시 :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 부산광역시는 신용카드, 이동통신, 보행 네트워크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5분 생활권*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 SOC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등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이 적용된다.

* 행정구역 중심의 생활권을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나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구분

② **천안시 : Compact&Network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 거점도시 조성**

- 천안시는 통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대학 등이 유발하는 통근·통학 등의 생활인구를 추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도시 공간 변화 예측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주변도시의 수요를 반영한 광역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지역 거점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③ **담양군 : 생태도시 계획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강소도시 조성**

- 담양군은 신용카드, 이동통신, 고속도로 통행량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관광자원 유발인구와 인근 도시와 연계된 체험·관광인구를 추정하고 이를 생태관광에 최적화된 기반시설 배치 등이 반영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하는 강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